

“호남지역 온라인 학습자 현장 접근성 강화”

국제사이버대 ‘광주 호남지역교육관’ 개관

동구 한국예술종합교육원 내 설립
도움 위한 상시 학습지원센터 운영
학습질의·진로상담·전공활동 안내
원예·치유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온라인 학습자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현장 접근성을 강화해 원격교육의 장점을 오프라인과 연결하는 중심 센터로 나아가겠습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호남 지역 학생들의 학습 접근성과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해 광주 동구 한국예술종합교육원 내에 ‘호남지역교육관’을 개관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교육관 현판식에는 홍승정 국제사이버대 총장과 서동균 한국예술종합교육원 원장(국제사이버대 특임교수), 채선희·은봉화·임이엽·정선영 식물치유클리닉학과 교



국제사이버대학교 홍승정(왼쪽서 세 번째)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최근 광주 동구 한국예술종합교육원에서 열린 ‘호남지역교육관’ 개관식에서 현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제공>

수, 이창래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사이버대는 호남지역교육관 개관을 계기로 호남권 학습자 접근성 향상과 실질적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을 두 축으로 지역 학습문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사이버대는 교육관을 단순한 행정지원 장소가 아닌, 지역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학습지원 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호남권 학생들은 교육관을 활용해 ▲학습 질의 해결 ▲개인 및 진로 상담 ▲전공 활동 관련 안내 ▲교수진 연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학과별 모임·학기 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균 특임교수는 “지역 안에서 배움이 흐르고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호남지역교

육관은 온라인 수업의 이해도 향상, 전공 활동 참여, 진로 탐색까지 지원하는 학습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필요할 때 머무르고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공간으로 조성해 교육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정 총장은 “온라인 교육은 경계를 허물지만, 때로는 더 가까운 상담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호남지역교육관은 지역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찾아와 학습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열린 거점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라면서 “대학은 이 공간을 학업 지원·학생 소통·현장 연계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사이버교육의 확장성과 실재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남지역교육관은 학습 역량 강화와 멘토링 진로·상담 프로그램, 지역 산업 및 기관 연계, 전공별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역할을 넓히고 원예·치유·농업 관련 학과 운영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다는 방침이다. /박선욱 기자

김전기 문학평론가, ‘열린 시학’·‘시와 문화’ 평론상 수상 잇따라

한국문학 비평 지향점 제시 등 주목

문학평론가인 김전기 전남도립대 강의교수(엘니스6차산업학과·사진)가 2025년 ‘열린 시학 평론상’과 ‘시와 문화 평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 제30회 한국출판 평론상 수상에 이어 거둔 성과다.

계간 ‘열린 시학’은 지난 1일 김 교수의 평론집 ‘문학 공간의 미학’(전남대 출판부, 2021)을 제17회 열린 시학 평론상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같은 날 계간 ‘시와 문화’는 그의 평론 ‘플랫폼



시대의 속도와 윤리의 시학’(시와 문화, 2025년 가을호)을 제7회 시와 문화 작가상(평론 부문)으로 선정했다.

‘문학 공간의 미학’은 국내 주요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평론을 묶은 저작으로,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며 한국문학 비평이 지향해야 할 새 지평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플랫폼 시대의 속도와 윤리의 시학’은 박몽구 시집 ‘한밤중 단거리 선수’를 분석한 평론으

로, 한국 현대 시사에서 윤리적 리얼리즘의 미학이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 교수는 “평론가의 역할은 단순한 평가자가 아니라, 문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발견하며 시대의 언어를 성실히 기록하는 동반자”라면서 “앞으로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이 지닌 문학적 가치와 미학적 의미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명해 한국문학의 생태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대 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광주 지역 일간지 문화부장과 논설

장을 지낸 문화 전문 기자 출신이다. 강진군 시문학가기념관장을 3대에 걸쳐 역임했으며, 2021년 계간 ‘시와사람’ 문학평론 당선으로 평론 활동을 본격화했다. 저서로는 ‘문학 공간의 미학’, ‘시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남도 현대 시문학의 산책’ 등 5권이 있다.

한편 제17회 열린 시학 평론상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성관대학교 총동창회관에서, 제7회 시와 문화 평론상 시상식은 17일 오후 5시 서울 마로니에공원 ‘예술가의 집’에서 각각 열린다. /최명진 기자



초록우산 광주본부, 이주배경아동 권리증진 포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 이주배경아동 권리증진 포럼을 개최해 이주민 밀집지역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광산구 송정다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광주 이주민 밀집지역 이주배경아동, 오늘을 듣고 내일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생활실태 연구조사 결과 발표

와 토론을 통해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고광일 목포한국병원장,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전남도는 2일 “고광일 목포한국병원 원장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고광일 원장, 범희성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1988년 개설된 목포한국병원은 20개 진료과와 600병상을 갖춘 전남 서부권역 대표 종합병원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필수요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목포한국병원은 2021년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병원 소속 봉사단이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생필품 기부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범희성 원장은 “연말을 맞아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한 고광일 병원장께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은 전남의 인재가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데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기탁금은 재능이 우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워크숍·성과대회 성료

전남도는 2일까지 이틀간 신안 라마다호텔&씨원리조트에서 ‘2025년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워크숍&성과대회’를 개최,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 워크숍과 2일차 성과대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도, 시·군 관계자와 책임의료기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전남도 진료권 현황 분석, 전남

도 필수의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필수·응급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 등 지역 의료정책의 핵심 의제가 집중 논의됐다.

성과대회에선 공공보건의료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했다. 최우수상에 곡성군 보건소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우수상은 장성군 보건소의 ‘달마다 주민 곁으로, 건강을 잇다’, 장려상은 고흥군 보건소의 ‘고흥군 보건진료소 신설 기능 확대’,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진료도 배달됩니다’ 농촌 왕진버스’가 선정돼 전남지사상을 받았다. /김재정 기자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 대표원장, 조선대 발전기금 기부

조선대학교는 2일 “전날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 대표원장이 글로벌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식에는 김춘성 총장과 고길석 대표원장, 전제열 부총장, 배영덕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대는 해당 발전기금을 글로벌대학 사업의 추진 기반 강화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고길석 대표원장은 “조선대가 내년 개교 8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립대학의 설립정신을 잇는 마음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광주센트럴병원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성 총장은 “기부의 뜻을 소중히 받아 민립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선욱 기자

김미경 광주대 교수 한국여성학회회장 취임



광주대학교는 2일 “김미경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제42대 한국여성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신입 회장은 “2026년 전환기 여성학의 과제와 사회적 연대를 모토로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한국 사회를 위해 한국여성학회가 앞장서겠다”면서 “현실과 이론, 이론과 실천, 운동과 일상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는 한편 젊은 연구자들과 지역 여성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더욱 ‘열린 학회’로 나아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미경 회장은 독일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광주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선욱 기자



신안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신안경찰서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준 서장을 비롯한 각과·계장과 김신규 경찰발전협의회장, 회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사장 수여식과 함께 올 하반기 주요치안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남완 경찰발전협의회 간사는 “신안은 어린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민원 응대나 순찰 활동 시 피싱 예방 앱인 ‘시티즌코난’ 설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신규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치안 파트너로서 경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경찰서장은 “안전한 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 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안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신안=양훈 기자



나주소방·한전, 겨울철 화재 예방 컨설팅

나주소방서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직원을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 화재·피난 안전관리 컨설팅’과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소방은 한전 본사 로비에 화재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전기 화재 주의 안내문이 부착된 핫팩을 배부했다.

또 컨설팅에서는 한전 안전관리자와 함께 ▲초기 대응 절차 및 자위소방대 임무 점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현장 맞춤형 피난 지도 등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신항식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결혼

▲임승빈·김라미씨 장남 진혁(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급, 김한철(당양자치신문 대표)·김선남씨 장녀 민주(서울 초등학교)·양=6일(토) 오후 2시 덕진벤치 반포 그랜드볼룸(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02-6243-6000, 010-8915-4631).